

교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 준 상*

I. 문제제기

청소년연구는 교육학분야에서 크게 다뤄졌어야 될 부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학계는 그간 청소년연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물론 청소년관계 연구물이 교육학계에 적게 회자되었다고 청소년연구에 관한 교육자들의 관심이나 그들에 의한 청소년연구의 질마저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관계 단체들의 사회교육적 활동이나 일반 교육자들이 보인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오히려 교육학관계 단체들의 연구활동에 결코 뒤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렴지와 오늘의 청소년이라는 잡지를 통해 청소년관계 글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청년연구지를 통해 청소년문제들을 연구하거나 관련 소식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활동관계 사회교육기관이 청소년에 관한 갖가지 사회교육적 활동이나 조사연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에는 이론적인 기초가 결여되었다든지, 실천적 처방이 결여되어있다든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소년활동관계 사회교육기관의 사회교육적 활동이나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비판이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 어떤지는 본 글에서 다루질 내용이 아니다.

본 글은, 만약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회교육기관이나 교육학계의 관심이 덜 이론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청소년연구에 관한 이론적 추새와 실천적 동향을 신속하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아래, 청소년연구의 이론적 동향과 실천적 과제를 논의한다.

II. 청소년연구를 위한 일탈론의 이론적 동향

청소년문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학과 사회학계에 대두된 주요 이론은 크게는 네 갈래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갈래는 구조기능주의적 일탈론이고, 둘째는 갈등론적 일탈론이며, 셋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민속방법론적 일탈론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청소년문제 이해의 이론적 틀은 구조주의적 일탈론이다.

1. 구조기능론적 일탈론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해체라는 관점을 일탈이해의 핵으로 삼고 있다. 구조기능론자들은 사회를 유기체적인 사회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하부체제와 다른 하부체제가 연결·조정·통합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커다란 사회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하부체제들간의 연결과 조정으로 전체 사회체제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이상, 각 체제는 적응이라는 욕구를 갖게 된다. 각 체제간의 적응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해체란 사회체제간의 부적응, 이상적응, 부적절한 적응현상의 시작이며 결과를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일탈현상은 사회해체를 촉진하는 적응부재이거나 부적절한 적응현상으로 이해되게 된다.

규칙의 부재에 규칙준수의 실패를 일탈현상으로 파악하는 구조기능론자들은 일탈에 의한 사회해체의 원인론적 가능성을 두 가지 방향에서 다르게 논의한다. 첫째 사회구조의 관점과, 둘째 사회과정의 관점으로 양분시킨 채 조금씩 다르게 진술한다.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일탈의 문제를 사회해체론과 결부시키는 대표적인 사회학자들은 Durkheim의 “아노미”이론을¹⁾ 논리전개의 핵심사상으로 계승한다. 예를 들어 Parsons나 Merton 등은 Durkheim의 아노미이론을 지지한다. 특히 Merton은²⁾ 무규범 상태가, 출세 성공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상이나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문화적 이상을 충족 도달케 만들어 주는 합법적인 수단이 봉쇄,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Merton은 합법적인 수

1) Durkheim, E.(1961), *Moral Education*, New York : Free Press.

2) Merton, R. & Nisbet, R.(Eds.) (1966). *Contemporary Social Problems*(3rd), New York : Harcourt Brace.

단 제공과 문화적 목적간의 괴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탈 비행 현상을 4가지로 대별했다. 즉, 혁신적 일탈 유형, 의례주의적 일탈 유형, 패배주의적 일탈 유형, 반항적 일탈 유형으로 대별한 바 있다. 즉 혁신적 일탈 현상을 기존 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른 상태의 비합법적인 수단을 구사해서 사회적 목적을 완성하려는 유형의 일탈이다.

시험부정이나 절도단 구성 등은 혁신적 일탈 유형의 속한다. 목적달성을 처음부터 포기한채 수단만을 과잉 강조하는 유형의 일탈은 의례주의적 일탈 유형에 속한다. 패배주의적 일탈은 목적과 수단을 기존 사회규범으로부터 분리, 포기한 상태의 일탈현상을 의미한다. 수단과 목적을 기존 규범이 강요하는 것과는 질·양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유형의 일탈은 반항주의적 일탈이 된다.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일탈문제를 논의하는 구조기능주의자들의 사회해체론은 우리에게 최소한 세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³⁾ 첫째, 사회계층간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일탈 발생률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계층은 사회가 강조하는 목적이나 규범과 문화적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과 기회를 동질·동량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한 사회가 성공·출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이나 이상을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한, 무규범 상태 지향적인 일탈과 비행 현상은 병리적인 사회적 욕구나 규범에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대처하는 한 가지 사회생존 적응전략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구조론적 일탈이론으로서의 구조기능론은 다양하기 그지없는 사회문제, 사회적 일탈, 비행현상을 진보적으로 설명하는 단일의 사회학적 이론을 구축, 제공하고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일탈의 문제를 사회해체론의 관점에서 사회과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회학자들은 Thomas와 Znaiecki, Sutherland와 Cressey, Cohen 등이다. 특별히 Sutherland가 제시한 사회일탈 관점은 기회접촉이론이라고 명명된다. 기회접촉이론은 한 개인이 어떻게 일탈자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일탈화 과정 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 Sutherland는 개인이 일탈의 문화와 접촉, 사회화당함으로써 일탈 규범과 행위를 학습한다고 보았다. Merton이 사회구조적으로 일탈 발생비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면, Sutherland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탈자가 되는 데 반해 다른 사람은 일탈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사회과정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했다.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의 각 관점을 융합시켜 일탈, 비행의 문제를 논의한 사람은 Cohen, Cloward, Ohlin 등이다. Cohen, Cloward, Ohlin 등은 규범외해이론과 기회

3)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출판부, 3장.

접촉이론을 융합시켜 일탈 비행의 현상을 사회해체론 지향적 구조기능론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특별히, Cloward와 Ohlin은 기회구조의 개방이론을 주장했다. 즉, 일탈 비행현상은 목적달성을 위한 기회구조의 불균형·부재·봉쇄 등에 의해 야기됨을 강조하였다. Cloward와 Ohlin 등이 제시한 기회구조개선이론은 지역사회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빈곤 탈피, 사회교육활동의 불평등 현상이 제도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일탈현상의 예방이나 근절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예시해 준 바 있다.

2. 갈등론적 일탈론

갈등론적인 관점으로 일탈의 문제를 이해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계층 계급간의 대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갈등은 인간이 사회구성원들과 서로 교제하는 한 피할 수 없게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식이며 결과로 해석된다. 사람들은 일상사를 통해 그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들이 고수하는 가치나 이해관계에 도전하거나 대립할 수도 있다. 즉, 자신들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남에게 제시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단 혹은 개인간의 갈등이 사회해체적인 근본 요소로서 지적되어야 할 큰 이유가 없다.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며, 인지된 문제상황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하며, 어떤 식의 처방과 개혁이나 변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상황 인지, 정책구성, 개혁추진의 세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각 과정은 서로 다른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대결·도전·타협으로 정리된다.

결국, 갈등론자들은 사회문제를 두 가지 시각으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어떤 학자들은, 사회문제란 어떤 집단의 과업이나 이해관계가 사회정책적으로 밀어부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의 가치 이해관계와 공존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라고 이해한다.⁴⁾ 둘째, 어떤 학자들은⁵⁾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대와 규칙을 어겼다고 판정하는 제3자들이 사회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반응 방식 및 상태를 사회문제라고 정의한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문제스럽거나, 일탈적이라고 낙인하는 상황이나 그렇게 규정하는 조건이 사회문제로 인지되어 기정 사실로 귀착되느냐 안되는나의 정도가 바로 사회문제인 것이다. 사회세력이나

4) Fuller, R.C.(1941), "Some Aspects of a Theory of Social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 pp.24-32.

5) Becker, H.S(ed), *Social Problem : A Modern Approach*, New York : Wiley.

집단은 세 가지 경로로써 일탈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재적으로 창출시킬 수도 있다.

첫째, 일탈행위로 판정 간주되는 가치나 규칙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일탈을 유도해 내기도 한다. 둘째, 만들어 놓은 규칙을 특정 개인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일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권력집단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도전하거나 어긴 사람들은 적절히 통제하거나 그들에게 오명을 붙여 줌으로써 일탈을 창출시키기도 한다. 세 가지 일탈 창출과정은 한 사람이 행한 행동이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판정은 무의미함을 일깨워 준다. 일탈은 이해관계집단의 규칙이나 법칙을 어떤 사람의 행위에 적용시킨 후 그 결과 나타난 사회적인 부산물일 뿐이다. 한마디로, 일탈자는 오명을 성공적으로 뒤집어 쓴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명받은 대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갈등론적인 시각에서도 일탈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낙인이론은 미시적 사회학의 한 조류인 상징적 교섭론과 이념적으로 동일보조를 취한다. 낙인이론가들의 주요 관심은 특정 행위 감행자, 특정 행위를 실감나게 보고 있는 청중, 행위자도 청중도 아닌 제3자간의 사회심리적 교섭과정인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개인적, 혹은 공공적인 모습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낙인이론자들은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어떤 식의 사회적 처치와 낙인을 부여받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행위자 개인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처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행위자 개인에게 두 가지 제한을 가하게 만든다. 첫째, 일탈이라는 오명이 개인 위에 낙인되면, 그 개인은 사회적 참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둘째, 행위자 자신의 주체적 형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일탈자라는 이력이 개인의 이력으로 따라 붙어 다니게 된다. 낙인이론자들에 의하면, 일탈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만들어진 사회적인 결과이다. 낙인이론과 상징적 교섭론은 일탈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2가지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즉 첫째, 일탈행위를 사회적 정의·판단의 문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낙인이론자거나 상징적 교섭론자에 의하면, 일탈현상은 한 특정 개인이 어떤 특정 행위를 감행했을 때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그 특정 개인의 행위를 일탈이라고 낙인했을 때, 비로소 일탈 비행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이나 비행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타협이나 부정적인 야합이 개제될 수도 있다. 둘째, 일탈행위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 어떤 규칙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일탈현상으로 이해한다면, 한 특정 문화권이나 그 사회체제에서 일탈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현상은, 다른 특정 문화권이나 그 사회체제에서는 일탈적인 현상으로 낙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규칙이나 행위기준은 문화권이나 사회체제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일탈행위에 대한 판단과 낙인은 사회체제와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상대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를 들어 남녀간의 키스는 동·서양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3. 민속방법론적 일탈론

사회적 일탈현상을 민속방법론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탈행위를 현상학적 내지는 해석학적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대변한다. 민속방법론적인 일탈현상 이해 방법은 단순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상식적 이해 테두리 속에서 일탈현상을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민속방법연구론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일탈(행위)이라고 낙인찍게 만드는 사회적 규범은 낙인찍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실체로 인지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회현상이라고 인지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속방법연구론자들에 의하면, 낙인찍는 행위 그 자체는 낙인찍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견해나 머리 속에서 해석되어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낙인찍는 사람들의 상식적 이해와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명은 민속방법론에 있어서는 늘 주요한 논의주제가 된다. 결국, 민속방법론자들은 사회구성원들이 한 사회구성원에 의해 감행된 어떤 행위를 일탈이라고 규정키 위해 동원시키는 방법이나 이론적 체계가 늘 문제스럽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민속방법론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사회구성원들이란 두 형식으로 대분된다. 첫째, 행위자로서 일반인들이고, 둘째, 연구자로서의 일반인이라는 두 형식의 사회구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속방법론자들은 일반 행위인과 연구행위자 등 두 형식의 사회구성원들이 일탈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동원하는 상식적 방법이나 해석방법의 모호성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시 말해서, 민속방법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탈행위를 판단, 규정키 위해 일반 행위인들이 구사, 동원하는 상식적 지식과 이해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 다음 사회과학도로서의 연구자들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 즉, 일반 행위인들의 상식적 지식, 이해체계에 근거를 두고 일정한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행위자들의 학문적 방법과 이해에 문제를 제기한다.⁶⁾

민속방법론자들은 3가지 점을 분명히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기존의 사회학의 사고구조는 자연과학에서 생각을 읽어 짜는 방식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6) 한준상(1986), “한국교육사회학의 민속방법론적 반성”, 현상과 인식, 가을, pp.107-141.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회학은 사회구성원의 행위가 상황의존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사회과학은 사회구성원들의 1차적 언어와 개념의 발전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일상인들의 1차적 개념을 2차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사회과학자들의 이론화 과정과 방법은 마땅히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 민속방법론자들은 연구자들의 이론화 과정에 3가지 점을 체계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⁷⁾ 첫째, 주관적 해석 유지의 공리를 지켜야 한다. 즉,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 이론구성은 당연히 일반 사회행위자의 행위에 붙어 있는 주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제시하는 각종 관련 사실이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지켜야 한다. 즉, 사회과학자들이 시도하는 2차적 언어로서의 체계적 이론화와 일반인들이 시도하는 1차적 자연언어로서의 상식적 이론화간에는 늘 일관된 상응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두 이론화간에 일관된 상응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과학적인 이론은, 과학적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일반인의 상식적 지식으로 재변 안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사회과학자의 이론화는 일반인의 현실적인 상식과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속방법론자들은 논리적 일관성 유지의 공리가 사회과학적 이론화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자들의 논리는 일반인들의 논리와 성격상 서로 다르다. 사실 사회과학자들의 사고구조와 일반인들의 사고구조는 상이하다. 일상사를 통해 행위하는 일반인들의 지식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세 가지 특징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첫째, 논리에 있어서 불연속적이다. 둘째,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분명하다. 셋째, 상호모순성을 지니고 있기 조차 하다. 일반인의 상식이 불연속적으로 제시되고, 부분적인 분명성을 지니고 있고, 게다가 모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일반인의 지식을 사회과학의 연구에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민속방법론자들은 일반의 상식, 즉 1차적 지식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2차적 개념구상으로 전환되는 한, 일반의 상식적 지식은 아무렇게나 폐기되어질 성질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사회과학자들이 방법론적 반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방법론적 반성의 한 방도로써, 사회과학자들은 일상사를 통해 얻어지는 일반의 상식적 지식에 대한 고도의 명료성을 유지해야 한다.

민속방법론자들에 의하면, 논리적 일관성의 공리, 적절성 유지의 공리, 주관적 해석 유지의 공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사회과학자들은 일반인들의 설명이나 그런 방법에

7) Schutz, A.(1962), *Collected Papers*, Hague : Nijhoff, 2장.

최대의 탐구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설명은 한 행위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의 의미나 뜻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능력이며 방법이다. 어떤 행위자든 그는 설명을 통해 자기의 처지를 남에게 인식시킨다. 사회과학자가 한 행위자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회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2차적 개념구성으로서의 이론화는, 한 행위자의 상황과 관련된 1차적인 자연적 언어와는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개념구성이 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전혀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이론화로 끝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민속방법연구론자들은 일탈행위의 설명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낙인론자들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탈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일탈행위를 해석하는 일반 행위인들의 상식적 관점과 일반 행위인들의 상식적 관점을 해석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이론적 관점간에는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낙인론자들은 연구행위자로서의 자기들이 동원하는 연구방법이나 · 관점들이 일반 행위인들의 규율 깨기나 낙인찍기 등과 같은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줄 수 있는 탐구행위라고 좋아한다. 그러나, 연구행위자로서의 낙인론자들 스스로는 일반인들의 이해방법과 체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4. 구조주의적 일탈론

구조주의자들의 일탈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개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식과 권력의 공생관계, 둘째, 사회공학의 물주체성이라는 두 개념을 뽑아낼 수 있다. 모든 과학과 그로부터 연유된 지식은 특정 계급의 사회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일반 의미로서의 이념만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지식은 이데올로기 그 자체이다.⁸⁾ 또 실로 그것을 생성해 낸다. 지식과 공생관계를 맺지 않는 권력은 쉽게 소멸된다. 권력과 공생관계를 맺지 않는 지식 역시 그 생명력은 짧기 마련이다. 지식과 권력은 공생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기초한 실천과 지식에 기초한 이론은 이중구조를 갖고 인간생활에 침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은 꼭 정치적 집권세력같은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의 지식지향적인 속성을 갖는다.

권력과 지식의 공생관계와, 삶에 있어서 이것의 중첩적 이중구조성은 통제기능과 감시기능을 발휘하며, 이것은 권력유지와 담론생산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8) Foucault, M.(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 Tabistock.

권력은 어떻게 하면 가장 철저하고도 완벽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제기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권력을 위해 제공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Bentham이 지적했던 그 유명한 원형감옥 *Panopticon* 구상이다.

원형감옥은 중앙의 감시자가 감옥의 구석구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나, 감독의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알아볼 수 없도록 고안된 감옥이다. 물론 이것이 만들어져 쓰여진 적은 없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감옥에서의 권력행사가 자동적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권력기능과 감시기능이 자동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체성을 갖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는 정보교환, 대화, 연구, 공부 등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주체적일 수가 없다. 사람간의 간(間) 주체적 대화 역시 몰주체적이게 된다. 간주체적 대화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대화가 늘 감시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형감옥은 현대에서는 상징적으로 더욱 더 도처에 있게 된다. 원형감옥은 하나의 사회이다. 사회라는 원형감옥은 여러 개의 수감실, 즉 방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각 방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하다. 만약, 미친 사람이 그곳에 수용되면 그 곳은 정신병동이 되고, 스님이 들어가 있으면 절,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되고, 환자가 들어가 있으면 병원, 노동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곳은 직장, 죄수가 들어가 있으면 감옥이 된다. 결국 같은 논리에 의해 학생이 들어가 있는 방은 바로 학교가 된다. 결국, 권력과 공생관계에 있는 지식이 만들어낸 소위 “현대적 이성주의”는 현대사회를 감시되는 사회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것의 논리가 될 뿐이다. 그런 투명 사회가 갖는 원리적 제약 때문에, 현대사회는 철저하게 자동적으로 감시되는 감옥과 같다.⁹⁾ 바로 이 점은 각종 권력들이 왜 각양각색의 연구소나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지, 동시에 왜 그런 기관들은 기생적 국가기구라 불리우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준다.

권력과 지식의 공생관계적인 중첩구조성은 학교라는 원형감옥에서 의도적으로 작용한다. 학교는 이중구조적 모순대립의 이분법적 양식에 따라 학교권력에 동조하는 학생과 그것에 저항하는 학생, 우수아와 열등생, 정신차린 놈과 정신나간 놈 등등을 과학적으로 가린다. 전자는 정상 학생이고 후자는 비정상적인 학생으로 낙인되어, 그 후부터는 그것에 따라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처우를 해준다. 도덕적 압력이, 권력유지상 정당화되기 위해 다시 과학이 동원된다.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학생은 오만, 열성부족, 불결, 불순, 무례, 전방짐, 뻔뻔스럼 등의 유목으로 다시 갈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더욱 더 새롭게 대우받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정상

9) Foucault, M.(1977), *Discipline and Punish*, London : Allen Lane.

적으로 분류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기존 원형감옥의 자동적 통제에 철저히 길들여지는 그 학생들도 문제아이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학교는 권력과 지식이 결부되어 학생들을 철저히 길들이기 위해 그들을 분류, 선별, 감시, 배제시키는 곳과 같다. 이것은 학교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의 이중구조성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런 것이다. 결국, 학교는 일탈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용의주도하게 간섭하고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권력과 지식의 공생관계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지배와 감시의 구조는 원형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철저히 감시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을 완전하게 길들여 놓지는 못한다. 완전한 길들이기가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지식과 권력의 공생관계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시의 완전성에 있다.

권력과 지식의 공생관계가 완전성을 구사하려고 하면 할 수록, 그 속에는 그 완전성을 잠식해 들어가는 탈완전성의 구조가 더욱 더 분명해 진다. 그것의 발아는 원형감옥의 내부에서 개인들의 저항을 싹트게 만든다. 시민적 저항의 가능성은 Foucault의 예에서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 즉, 국왕 살인범에 대한 처형과 이에 대한 시민저항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759년 프랑스 파리성당 앞 Greve 광장에서 국왕 살해범을 처형하는 장면은 이조시대의 형벌 그 이상이었다. 별거벗은 그에게 쇠인두 질과 왕을 찌르기 위해 칼을 잡았던 그의 손을 황산과 잡, 송진으로 지졌다. 나중에는 말에 사지를 묶어 찢었고, 그 살점과 뼈를 불태웠다. 이런 형벌은 국왕이 법이라고 대표되는 군주의 절대권력을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면서, 그 권력행사의 정당성은 사법적 판결과 행정력이라는 지식에 의해 아무런 하자 없이 정당하게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 바로 그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시민의 각성에 의해 좌초당하고 말았다. 국왕 살해범에 대한 혹독한 처형 장면과 그런 장면을 전해 듣는 시민들은 권력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절대권력과 그에 빌붙은 보조세력과 그들의 지식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부추키게 된다. 즉, 처형의 장면을 통해 권력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그 대신 희생자는 사회적 영웅으로 채색되게 된다. 이런 사건과 예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끄집어 낼 수 있다. 물론, 이런 저항과 각성이 삼시간에 일어나거나 한순간에 촉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항의 감각이 쌓이고 쌓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권력과 지식간의 공생관계적 모순구조성이 극에 달할 때 권력과 지식의 중첩적 기능에 대한 해체적 세력은 더욱 더 보강된다.

청소년연구에 관한 구조기능론, 갈등론, 민속방법론, 구조주의적 일탈론은 각기의 관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이론적 관심대로 그들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각 이론에서 어느 한 가지 관점을 택한다는 것은 청소년과 사회, 학교, 가정간의 관계를 그 관점으로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하나의 관점을 꼬집어 내어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 고정시키기 전에, 연구자 스스로 청소년과 사회, 교육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청소년문제 해결의 실천적 동향

청소년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대체로 2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 청소년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명제 중의 하나가 바로 문제아 뒤에 문제부모가 있다라는 명제이다. 즉, 문제청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과 부모의 지도가 문제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청소년 뒤에 문제가정이 있다는 명제는 청소년들과 가족구성원간의 사회심리적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방안을 요구한다.¹⁰⁾ 이 명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명제에 매달려 있는 한 청소년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청소년과 가정과의 정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방안들이 1945년 이래 한국 사회교육계와 교육계에 회자되었지만, 청소년 문제가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¹¹⁾ 문제청소년의 문제를 마음껏 지적한 뒤 다시 문제아들을 문제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기계적인 일들은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물론,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정에 대한 지도와 조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다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확대된 명제가 바로,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가정 그리고 문제학교가 있다라는 명제이다.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가정, 그리고 문제학교가 있다는 명제는 문제청소년의 문제를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보다 한결음 앞선 논리이다.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의 삶, 바로 그것이다. 하루 시간의 70% 이상을 학교교육을 위해 소비하고, 인생의 30%를 학교교육으로 투입시켜야 하는 청소년기의 삶은 곧 바로 학교생활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물적 조건과 인적 조건,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사회심리적 관계, 즉, 학교교실환경, 교사, 급우들의 질과 내용,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

10)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출판부, 1장, 2장.

11) 한준상(1989), 위 책, 4장, 5장.

이 어떠한가를 논의, 분석하고, 그로부터 청소년 대책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청소년문제 해결과 문제축발의 장으로 보고 연구, 청소년 대책을 세우는 방법들은 더욱 더 보강되어야 한다.

둘째, 요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각광을 받는 명제가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가정, 문제학교, 그리고 문제사회가 있다는 명제이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문제사회 좁게 말하면, 문제지역사회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시 물적 인적 조건의 복합체로서 청소년들의 삶에 사회심리적이고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놀터를 만들어 주는 물리적이고도 심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간확보 과제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공간은 청소년의 4가지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¹²⁾ 첫째,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놀이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안전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즐기며, 한껏 배움으로써 그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체육공간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간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동단위, 마을단위, 아파트단위로 청소년체육 절대 공간을 확보한다. 둘째, 놀이한 공간이 확보되면, 공간의 사정에 따라 농구대, 탁구대 등등의 시설을 1점 이상 상설 고정시킨다. 셋째, 각종 국·공립 체육관 시설을 청소년에게 공개한다. 넷째, 학교 체육시설을 청소년에게 공개한다.

12) 한준상(1990), “청소년문화공간 확보 종합대책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과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청소년의 진로 및 진학 종합대책 연구발표회에 실린 논문, pp.63-65.

2) 사회교육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 공간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부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백화점의 일정공간이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시설이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셋째, 박물관 및 사적지 등은 청소년에게 가능한 한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각 대학별로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예비대학을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청소년 사회교육방송을 강화한다.

3) 문화공간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구단위, 읍단위별로 청소년 시네마를 설치·운영하여 비데오나 영화를 상영한다. 둘째, 구단위·읍단위별로 “청소년 놀이광장”을 설치·운영한다. 셋째, 구단위, 읍단위별로 청소년회관을 설치·운영한다.

- ① 음주, 마약, 성문제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한다.
- ② 패거리 싸움을 방지하고, 상담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 자원봉사자 활용
 - ㉡ 민간 시간제 청원경찰 활용
 - ㉢ 대학생 시간제 고용
 - ㉣ 사회교육전문요원 실습생 활용
- ③ 각종 클럽활동을 학교와 공동으로 활성화 한다.

4) 행·재정지원 대책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화 시킨다.

- ①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국 공통과 각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시킨다.
- ② 인력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보조계획을 체계화 한다.
 - ㉠ 민간인 시간제 경찰 충원, 활용
 - ㉡ 대학생 시간제 충원, 활용
- ③ 사립 사회교육기관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④ 청소년 문화공간 담당자들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시킨다.

2. 청소년 문제와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적 과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간확보문제와 더불어 청소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해해야 될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과 소외해소문제이다. 즉, 어떻게 청소년 스스로 자아개념을 확립하게 만들어 주며 동시에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청소년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외국의 청소년문제 해결사례로 보아,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다.

첫째, 성인사회와 청소년간의 사회관계망을 만들으로써, 청소년지원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사회관계망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미국의 경우 성인과외지도, 사회인사들의 모교방문, 공부방 마련, 대형 대부 *big brother, big father* 제도로 제시된 바 있다. 뉴욕, 이타카에서 실시한 성인과외지도 프로그램인 학습그물망 *the learning web*은 특정 직업기술을 익히기 원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에게 직업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원하는 성인들을 서로 연결해 준 성공적인 사례이다.¹³⁾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중심 해결전략의 두번째 유형은 청소년간의 상호연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8~10명의 청소년들과 성인 1명 등을 한 조로 만들어 상호간의 경험과 기술,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풀어내게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실시한 피어 *PEER: positive educational experiences in relationships* 프로그램과¹⁴⁾ 뉴욕의 스마트 *SMART: school mediator's alternative resolution teams*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상담자가 되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다.¹⁵⁾

세번째 유형은 청소년 자신을 사회문제 해결자로 활용하는 제도를 공식화시켜보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청소년들을 사회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자로 지원하여 할렘가의 빈민굴이나 폐허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들

13) Hamilton, S.F.(1981), "Adolescents in Community Setting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9, pp.23-38.

14) Hebeisen, A.(1973), *Peer Programs for Youth : A Group Interaction Plan to Develop Selfesteem ; self-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Mineapolis : Augoburg.

15)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1985), *Making a Difference : Young People in Community Crime Prevention*, Washington D.C.: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의 지역사회 재건계획대로 폐허지역 건물을 복구, 활용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¹⁶⁾

지역사회중심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의 네번째 유형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를 기업인들이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코닥필름회사는 청소년들에게 취직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공부와 취업간의 원활한 연결을 촉진해 준 바 있다.¹⁷⁾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지원을 위하여, 코닥회사는 각 학교마다 회사가 지원하는 유급 카운셀러를 배치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했었다. 시카고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취직준비 프로그램 *the job readiness program*을 설치, 낙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취직준비교육을 시켜 성공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 내에 별도로 취업반을 두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전담하여 풀어낸 성공적인 사례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안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킨 방법이 지역사회중심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의 다섯번째 유형이다. 뉴욕의 사우스 브롱스 새뮤엘 고펜스 직업고등학교 *South Bronx Samuel Gompers Vocational Technical High School*나 로스엔젤레스의 예스 *YES:youth enterprise system* 프로그램은¹⁸⁾ 청소년문제의 주범인 마약, 음주운전, 갯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지혜를 빌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마약예방, 음주운전, 갯문제 해결정책에 그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참여케 하여 그들의 의견과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정부와 학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해결하게 한다는 지역사회의 전략은 청소년들의 3가지 속성, 즉, 첫째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활기찬 에너지, 둘째로 청소년들의 의협심과 열정, 그리고 셋째로 청소년들의 재치와 창의적 능력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길러내는 것이 밝혀졌다.

16) Newman, F.M. and Rutter, R.A.(1986), "A Profile of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Programs", *Education al Leadership*. Jan, pp.65-71 ; Calabrese. R.L. & Schumer, H.(1986), "The Effects of Service Activities on Adolescent Alienation", *Adolescence*. Vol.21, pp.675-687.

17) Otterbourg, S.D.(1986), *School Partnerships Hard Book : How to Set Up and Administer Programs with Business, Government, and Your Communit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8)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1986), *Preventing Crime in Urban Community*. Washington D. C.: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IV. 맺는말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교사, 청소년기관, 경찰, 기업가, 판사, 청소년연구가, 자원봉사자, 학부모, 청소년 자신 모두가 함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엽적인 연구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연구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관해 하나의 관점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 그 관점은 청소년 이해를 위한 총체적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적인 틀이어야 한다.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주의적 접근과 민속방법론적 접근은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위해 이론적으로 참조할 가치가 크다.

청소년을 위한 연구와 병행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동 전략도 다양해야 한다. 그 전략은 지역에 따라 속성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전략의 지역적 특성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즉, 첫째 부모에게 자녀보호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둘째로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고, 셋째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도록 격려하며, 넷째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높은 이상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표와 어긋나는 청소년 지도는 소극적인 효과나 얻을 것이다. 이 모두는 지역사회가 학교 그리고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해 책임져야 될 과제이다.